한국 초, 중,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김 원 경*

초 록

한국 초, 중,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 청소년의 성별과 발달 단계(초기, 중기, 후기)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2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16개 시, 도의 초(4~6학년), 중, 고등학생 총 8,745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우울, 불안,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및 개인의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청소년의 자살생각 경험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이 모든 청소년기와 성별에 걸쳐 자살생각 예측의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초기에 비해 중기와 후기로 갈수록 더욱 중요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초기와 중기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하였으나 후기 청소년기에는 우울 변인이 종속변인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지각은 전체 청소년기에 걸쳐 자살생각에 대한 유의미한 심리적 변인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은 초기, 중기, 후기 모든 시기에 걸쳐 우울의 효과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자살생각 예측 변인이 청소년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전체 청소년기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발달시기별로 청소년 자살생각의 원인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발달시기 및 성별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자살생각, 심리적 요인, 청소년기, 성별

* 고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kwkkim@cyberkorea.ac.kr

I. 서 론

청소년 시기는 발달 시기 중에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 모두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인생의 매우 중요한 발달 시기이며, 다수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특별한 문제나 심리적 장애 없이 성공적으로 발달을 이루어 간다(남영옥, 2013; 박선희, 강주희, 전종설, 오혜정, 2010; Peterson, Kennedy & Sullivan, 1991). 이처럼 다양한 변화에 대처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청소년 자살은 심각한 사회적 청소년 문제에 해당한다. 자살은 청소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박영숙, 권윤희, 2013; 이창식, 정미나, 김윤정, 2012). 자살은 자살생각을 비롯하여 자살시도와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개념이며(Harwood & Jacoby, 2000) 자살생각이 실제 자살행동에 비해 약 4~6 배나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살의 예방을 위해서는 자살생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연구보고에 따르면(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이 연구대상 청소년의 46%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 경험은 매우 높은 것을 보고하였고, 자살생각을 경험한 청소년이 후에 성인기에 자살시도를 할 확률이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김지수, 2012; Reinherz, Tanner, Berger, Beardslee & Fitzmaurice, 2006).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자살의 근본적 대책으로 자살행동의 일차적 지표에 해당하는 자살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자살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자살생각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김보영, 이정숙, 2009; 송인한, 권세원, 김현진, 2013). 선행연구를 통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것은 주로 우울이나 분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적응적 위험요인(김미예, 김정미, 2013; 송인한 외, 2013),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 등의 긍정적 자기 인식 및 높은 사회적지지 수준과 같은 긍정적 보호요인(김보영, 이정숙, 2009; 문동규, 김영희, 2012)으로 구분하거나, 또는 개인의 정신건강요인(김미예, 김정미, 2013; 노혜련, 김형태, 이종익, 2005),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등의 개인의 자아관련 성격 요인(오승환, 2009; 이선희, 전종설, 2012), 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족관계(박병금, 2007; 서신자, 정민숙, 2013) 또는 사회적 지지나 또래와의 관계를 통한 대인관계적 요인(박재연, 2010; 정영주, 정영숙, 2007)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관련 요인 중에서 우울을 포함한 개인의 정신건강 요인은 자살생각 예측의 주요 변수로 확인되고 있다(김정진, 2009; Stephenson, Pena-Shaff & Quirk, 2006).

이처럼 지금까지 진행된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청소년 자신의 개인, 가정, 학교 및 친구집단 등을 중심으로 이런 요인들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왔다(오승환, 이창한, 2010; 장은진, 2011).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의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한정적 연구가 대부분으로서, 청소년기가 약 10여 년 간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기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대부분의 청소년 자살생각 관련 연구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특정 시기를 지정하여 연구한 것이며 때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차이를 비교 검증한 연구를 포함한다. 그러나 초기 청소년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된다고 볼 때 초기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중기와 후기 청소년들의 자살생각과 다른 양상의 발달적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전국 규모의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살생각 경험의 빈도가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이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보고하였다(최인재, 모상현, 이선영, 김혜인, 2012).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도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은 청소년 발달 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자살생각 관련 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청소년시기 또는 특정한 청소년시기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청소년기 전체에 적용하는데 있어 방법론적 문제에 직면한다.

또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자살생각에 관한 성별 비교의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최인재 외, 2012) 자살생각의 관련 요인 상에서도 성별에 따른 효과가 달리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자살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에 따르면, 청소년의 자살 시도나 자살 생각은 여자가, 실제 자살을 통한 사망자 수는 남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남적인, 최권호, 민지아, 2011; 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러한 패턴은 외국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나고 있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 및 발달적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청소년 자살생각의 심리적 원인을 규명하고 각 시기별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인생에서 약 10여 년에 걸쳐 진행되는 발달 과정임을 고려할 때 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기 별로 청소년 자살생각의 주된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또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청소년 자살생각의 원인을 청소년기 전체에 걸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요인의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원인 규명에 대한 보다 확장된 접근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기 자살 관련 요인 연구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 관련 연구는 우울과 분노, 절망감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의 측면과(노혜련 외, 2005; Wang, Fuh, Juang & Lu, 2009) 가족이나 친구 또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회환경적 요인의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송인한 외, 2013). 특히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의 주요 예측변인으로 우울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해 오고 있다(김인규, 조남정, 2006; 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6). 우울과 함께 불안이나 스트레스, 충동성과 같은 부적응적 정서적 요인이 자살생각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들로 지적되어 왔다(김미예, 김정미, 2013; 이선희, 전종철, 2012; Deeley & Love, 2013; Niederkroenthaler, Logan, Karch & Crosby, 2014).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언하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우울을 포함한 부정적 정서요인이 매우 중요한 심리요인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자살생각의 영향 요인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는 자살생각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긍정적 심리상태와 관련된 연구가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긍정적 자아지각이나 자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의 긍정적 자기지각에 관련된 변인들은 자살생각에 조절효과를 가지는 대표적 보호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강희양,

양경화, 2013; 송인한 외, 2013; 조한익, 차주연, 2013).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확립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과 같은 자기통제적 측면의 요인은 자살생각을 비롯하여 청소년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기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의 자기관련 변인이 자살생각에 대한 직접, 간접 효과를 지닌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청소년기 자기지각 관련 요인은 청소년기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연구에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개인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자살생각 관련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회환경적 요인은 주로 부모와 가족 요인, 사회적지지, 학교 및 또래 요인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김현주, 노자은, 2011; 박영숙, 2009; 이지현, 이정운, 2009). 하지만 청소년 자살생각의 영향 요인을 어떤 측면으로 조명하든 간에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매우 복잡한 복합 기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자살생각에 대한 사회환경적 영향력을 고려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자살생각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대해 이들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조절효과 또는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거나 이에 대한 경로를 밝히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박영숙, 권윤희, 2013; 송인한, 권세원, 박단비, 2012; 이지숙,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원인 파악에 있어서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일차적 초점을 맞추어 자살생각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일관적으로 밝혀진 개인의 적응적, 부적응적 심리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청소년의 성별과 발달시기에 따른 자살 연구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생각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분석대상 청소년의 표집의 한계로 인해, 또는 표집 대상의 지역적 분포의 한계와 같은 문제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이 약한 임의 추출 표본 자료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진 결과가 대부분이었으며,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으로 분석 대상을 국한한 연구의 결과는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자

살생각 경험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들(김지수, 2012; 전경숙, 박소연, 조선희, 2012)은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을 파악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 경험이 더 높은 것에 대한 근거로서 자살생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우울의 유병률이 여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남석인 외, 2011; Nolen-Hoeksema & Hilt, 2009), 흡연이나 활동 제한과 같은 건강행동 요인 상의 차이도 자살생각의 남녀 차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김보영, 이정숙, 2009; 김지수, 2012). 청소년의 자살생각이나 자살행동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여자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관한 구체적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연구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성별을 하나의 변수로만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김지수, 2012; 노혜련 외, 2005; 박영숙, 2009). 또한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성별 효과를 고려한 연구에서도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 관련요인을 규명한 연구 결과들 역시 전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한계가 있다.

청소년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의 또 하나의 흐름은 비행청소년,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학교 밖의 청소년 등과 같이 특정 집단의 청소년에 대하여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을 파악하는 시도를 들 수 있다(김혜성, 김혜련, 박수경, 2007; 박근영, 최유리, 김보라, 2013; 이해경 외, 2006; 정익중, 박재연, 김은영, 2010). 따라서 일반 청소년 전체를 포함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기는 10대에 접어들면서 시작하여 약 10여년에 걸쳐 발달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청소년기 전체를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발달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살을 포함한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기의 발달 시기별로 서로 다른 영향 요인에 의해 효과를 달리 한다는 선행연구(황성현, 2012; Akers & Sellers, 2011; Thornberry, Lizotte, Farnworth & Jang, 1994)에서는 초기 청소년기(11-13세)보다 중기(15-16세)와 후기(18-20세)로 가면서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요인이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입증해 왔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청소년의 지역적 한계와 표집의 문제를 극복하고 청소년 자살생각 관련 요인을 제한적으로 다루는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확률표집을 통해 기존의 표집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규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2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의 초, 중, 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자살생각 관련변인 규명을 위해 이에 대한 영향 요인을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따른 자살생각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특히, 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기 발달시기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며, 발달시기와 성별에 따라 그 영향 요인들이 어떻게 다른지 또는 어떻게 유사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구체적 실증 자료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수립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2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전국 16개 시, 도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 1~3학년과 일반계와 전문계를 포함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은 본 자료의 수집을 위해 2011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을 활용한 전국단위의 대규모 표집 조사를 통한 표본을 추출한 후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 설문조사 방식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 3,185명, 중학교 1~3학년 재학생 2,986명, 그리고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 2,574명의 총 8,745명의 설문자료를 각각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에 대한 심리적 관련 요인이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의 발달시기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기 청소년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설문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중기 청소년기는 중학교 1학년부터 3

학년까지의 설문자료를, 후기 청소년기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설문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자살생각에 관한 질문에 무응답하여 결측치로 처리된 자료를 제외하고 총 8,618명의 자료를 연구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변인

1)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정신건강 요인으로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2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실태 조사』에서 청소년의 정신 건강 측정을 위한 개인의 심리적 영역 측정 내용과 개인의 주관적 정신건강 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 내용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심리요인과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를 포함하는 긍정적 심리요인 및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평가 문항을 포함하였다.

부정적 심리요인 중 우울은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의 정도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정도를 묻는 총 21개의 각 문항에 대해 0점(전혀 그렇지 않음)~3점(매우 그러함)까지의 4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0점~63점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매우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와 같은 자기혐오적 정서, ‘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졌다’와 같은 부정적 자아상, ‘나는 요즘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와 같은 신체적 상태,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난다’와 같은 부정적 인지 상태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계수는 .904로 나타났다.

불안은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역에서의 불안의 정도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총 21개 문항에 대해 ‘전혀 느끼지 않음(0점)~‘심하게 느낌(3점)’의 4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문항의 점수 범위는 0점~63점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주관적 불안요인),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배속이 불편하다’(자율신경계

적 불안요인),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 할 것 같다’(공황적 불안요인)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21개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계수는 .904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측정은 부모, 친구, 선생님을 포함한 대인관계 스트레스, 외모와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 가정형편과 경제적 사정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 현재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총 12개의 문항에 대해 ‘전혀 받지 않는다(1점)’~‘매우 많이 받는다(4점)’의 4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하였다. 문항의 총점 범위는 12점~48점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총 12문항에 대한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62였다.

긍정적 심리요인으로는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의 5개 요인을 측정하였다. 생활만족도는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매우 불만족(1점)’~‘매우 만족(4점)’의 4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에 포함된 평소 생활의 측면은 부모, 친구, 선생님과 관계에 대한 만족도,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여가생활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 건강에 대한 만족도로서 응답 총점의 범위는 8점~32점이었으며,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76이었다.

자아존중감의 측정은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와 같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정도를 묻는 5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총점의 범위는 5점~20점이며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20이었다.

자기효능감은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을 잘 할 수 있다’와 같이 자신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신념의 정도를 묻는 총 3개 문항을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3점~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84로 나타났다.

정서조절은 부정적인 정서 체험 후에도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정도를 묻는 문항(예: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는 총 3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3점~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이 효율적으로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34로 나타났다.

낙관주의는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며, 자신과 인생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의 정도를 측정하는 총 3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하였으며 총점의 범위는 3점~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과 인생에 대해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것을 의미한다. 3개 문항에 대한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25로 나타났다.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은 자신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질문에 대해 '전혀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1점)'부터 '매우 건강한 편이다(4점)'의 Likert 척도 상에 응답한 단일문항을 통해 이루어졌다.

2) 종속변인

이 연구의 종속변인은 자살생각 여부를 묻는 것으로,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있다'와 '없다' 중 하나에 답하도록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없다'는 답은 0, '있다'는 답은 1로 더미변인 처리하여 코딩하였으며, 무응답을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무응답 결측치는 완전 제거법을 통해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자료분석은 세 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인으로 사용한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성별 및 청소년기 발달단계 별 빈도와 비율 검증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살생각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의 분석에서는 세 개

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과정을 적용하였다. 첫 번째 분석(회귀 1)에서는 모든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인 자살생각 경험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 분석(회귀 2)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을 분리하여 남자 청소년의 자살경험 여부에 대한 심리적 요인의 영향력의 효과를 살펴보고, 세 번째 분석(회귀 3)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 경험을 각 독립변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사한지 또는 다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 세 개의 회귀분석을 연구 대상자 청소년 전체, 초기 청소년, 중기 청소년, 후기 청소년에 대하여 각각 적용하여 자살생각에 대한 심리적 요인의 효과가 청소년 전체에 대하여, 또한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의 발달 시기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 특성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사례수(명)	%
전 체		8,745	100
성별	남자	4,494	51.4
	여자	4,251	48.6
재학 중인 학교 교급	초등학교	3,185	36.4
	중학교	2,986	34.1
	고등학교	2,574	29.4
거주지	서울시	1,300	14.9
	광역시	2,185	25.0
	시군	5,260	6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7,681	87.8
	한부모가정	709	8.1
	조손가정	147	1.7
	기타	178	2.0
	무응답	30	0.3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분포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4,494명, 여학생 4,251명이었으며, 재학 중인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3,185명, 중학생 2,986명, 고등학생 2,574명이 포함되었다. 거주지별로는 서울 1,300명, 광역시 2,185명, 시군 거주 5,260명의 분포를 보였다. 가족구성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양부모가정 청소년이 7,6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부모 가정 청소년 709명, 조손가정 청소년 147명, 기타 형태의 가정 청소년 178명의 분포를 보였다.

2.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 경험 분포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심리적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종속변인으로 사용된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경험의 빈도를 성별 및 청소년 시기별로 나누어 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들 사이에서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청소년은 자살생각 경험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75.2%로 나타나 자살생각을 하는 경우보다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살생각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자살생각을 경험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남자 = 17.4%, 여자 = 29.7%),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 중에서는 중기 청소년(중학생)이 자살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초등학교 = 16.7%, 중학생 = 29.3%, 고등학생 = 24.7%). 또한 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기 모두에 걸쳐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자살생각의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중기 여학생이 연구대상자 전체 청소년 중 자살생각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39.0%), 같은 시기의 남자 청소년(20.3%)에 비해 거의 두 배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후기 여학생은 중기 여학생 다음으로 자살생각 경험이 높은 비율(32.5%)을 보이고 있으며, 이 또한 같은 시기의 청소년 후기 남자 청소년(17.05)과 비교하여 거의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교급에 따른 자살생각 경험 비율

	사례수	%	자살생각							
			있다		없다		무응답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8,745	100	2,043	23.4	6,575	75.2	127	1.5		
성별	남자	4,494	51.4	780	17.4	3,643	81.1	71	1.6	
	여자	4,251	48.6	1,263	29.7	2,932	69.0	56	1.3	
교급	초등학교	3,185	36.4	533	16.7	2,596	81.5	56	1.8	
	중학교	2,986	34.1	875	29.3	2,074	69.5	37	1.2	
	고등학교	2,574	29.4	635	24.7	1,905	74.0	34	1.3	
청소년 기	초기	남자	1,637	18.7	242	14.8	1,362	83.2	33	2.0
	초기	여자	1,548	17.7	291	18.8	1,234	79.7	23	1.5
성별	중기	남자	1,554	17.8	316	20.3	1,214	78.1	24	1.5
	중기	여자	1,432	16.4	559	39.0	860	60.1	13	0.9
후기	남자	1,303	14.9	222	17.0	1,067	81.9	14	1.1	
	여자	1,271	14.5	413	32.5	838	65.9	20	1.6	

3.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리적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살생각 경험 유무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성별과 발달적 시기에 따라 자살생각에 대한 심리적 영향요인이 달리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 전체 청소년에 대한 분석에 이어 청소년의 발달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를 표 3, 표 4, 표 5, 표 6을 통해 제시하였다.

1) 전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심리적 변인의 효과 검증

표 3은 초기, 중기, 후기를 모두 포함한 전체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대한 통합회귀방정식(회귀 1)과 남자 청소년(회귀 2; 남자 초·중·고 전체) 및 여자 청소년(회귀 3; 여자 초·중·고 전체)으로 나누어 실시한 부분 로지스틱 회귀방정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전체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통합 및 성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자살생각					
	회귀 1(통합)		회귀 2(남자)		회귀 3(여자)	
	β	Exp(β)	β	Exp(β)	β	Exp(β)
우울	.087***	1.091	.079***	1.082	.096***	1.101
불안	.029***	1.029	.029***	1.029	.031***	1.032
스트레스	.032***	1.033	.015	1.015	.029**	1.029
생활만족도	-.034***	.967	-.035**	.966	-.037**	.964
자아존중감	.027	1.027	.024	1.024	.024	1.024
자기효능감	.105***	1.110	.095**	1.099	.115***	1.122
정서조절	-.113***	.893	-.157***	.855	-.046	.955
낙관주의	.030	.971	.003	1.003	-.083*	.920
주관적 정신건강	-.208***	.813	-.208**	.812	-.219**	.803
예측성공률	80.9%		83.8%		78.2%	
-2 Log Likelihood	6582.232		2988.872		3522.241	
Model χ^2	1845.142***		657.145***		1092.643***	

* $p < .05$, ** $p < .01$, *** $p < .001$

청소년 전체를 포함한 회귀분석(회귀 1) 결과,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2 Log Likelihood(-2LL)와 Chi-square(χ^2) 값은 각각 6582.232와 1,845.142($p < .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독립변인들이 분석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포함되었을 때 전체 청소년들의 자살생각 여부를 정확하게 분류한 예측 성공률은 80.9%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청소년에 대해서 자아존중감과 낙관주의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인들은 자살생각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과 전체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 불안,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및 주관적 정신건강 평가 변인이 95% 이상의 신뢰수준 내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 여부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다른 속성 변수의 값을 일정하게 놓고 청소년 개인의 우울 속성이 1단위 증가하면 청소년 자신이 자살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1.091배 증가($p < .001$)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독립변수들의 값이 동일하다고 할 때 청소년 자신이 자살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은 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1.029배 증가하고($p < .001$),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1.033배($p < .001$),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1.110배($p < .001$) 증가하며, 생활만족도에서는 0.967배 감소($p < .001$), 정서조절에 대해서는 0.893배($p < .001$) 감소, 주관적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0.813배 감소($p < .01$) 감소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내적인 심리요인 가운데서 우울, 불안,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지속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자신의 정서에 대한 통제와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해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수록 자살생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독립변인 중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가능성에 대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text{Exp}(\beta) = 1.110, p < .001$).

남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심리적 변인의 효과를 검증한 분석 모형(회귀 2)의 예측 성공률은 83.8로 나타났으며 모형 적합도 지수인 $-2LL$ 과 χ^2 값은 각각 2988.872와 657.145($p < .001$)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독립변인과 남자 청소년의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낙관주의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인이 남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불안의 수준 및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생활만족도, 정서조절이 낮고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가 낮을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우울, 불안, 자기효능감 속성이 1단위 증가할수록 남자 청소년 자신이 자살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은 각각 1.082배, 1.029배, 1.099배 증가하며, 생활만족도, 정서조절, 주관적 정신건강 평가의 속성이 1단위 증가할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은 각각 0.966배, 0.855배, 0.812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독립변인은 자기효능감 변인이었다($\text{Exp}(\beta) = 1.099, p < .01$).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심리적 변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모형(회귀 3)의 결과는 $-2LL$ 및 χ^2 값이 각각 3522.241, 1092.643($p < .001$)으로 나타나 적합

한 모형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모형의 예측 성공률은 78.2%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독립변인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주관적 정신건강 지각 변인들이었다. 즉, 여자 청소년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속성이 1단위 증가할수록 여자 청소년 자신이 자살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은 각각 1.101배, 1.032배, 1.029배, 1.122배 증가하며, 생활만족도, 낙관주의, 주관적 정신건강 평가의 속성이 1단위 증가할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은 각각 0.964배, 0.920배, 0.803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독립변인은 자기효능감 변인으로($\text{Exp}(\beta) = 1.122$, $p < .001$), 남자 청소년과 청소년 전체의 자살생각에 대한 가장 유의미한 변인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2) 초기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심리적 변인의 효과 검증

초기 청소년, 즉 초등학교 4, 5, 6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 적합성을 확인하는 $-2LL$ 과 χ^2 값이 초기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모형(회귀 1)에서는 1830.077, 606.812($p < .001$), 남자 초기 청소년 대상의 모형(회귀 2)에서는 896.216, 261.780($p < .001$), 여자 초기 청소년 대상의 모형(회귀 3)에서는 926.481, 346.812($p < .001$)로 각각 나타나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독립변인들이 포함되었을 때 모델의 예측 성공률은 초기 청소년 전체, 남자 초기 청소년, 여자 초기 청소년에 대해 각각 85.7%, 85.8%, 85.7%로 나타났다.

표 4
초기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통합 및 성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자살생각					
	회귀 1(통합)		회귀 2(남자)		회귀 3(여자)	
	β	Exp(β)	β	Exp(β)	β	Exp(β)
우울	.116***	1.123	.099***	1.105	.133***	1.142
불안	.037***	1.038	.054***	1.055	.021	1.021
스트레스	.049***	1.050	.030	1.031	.069***	1.071
생활만족도	-.060***	.942	-.060**	.942	-.059***	.943
자아존중감	.058*	1.060	.058	1.060	.053	1.054
자기효능감	.162**	1.175	.097	1.102	.235**	1.265
정서조절	-.133**	.876	-.117	.889	-.147*	.863
낙관주의	.002	1.002	.008	1.008	.003	1.003
주관적 정신건강	-.267**	.765	-.314*	.730	-.215	.807
예측성공률	85.7%		85.8%		85.7%	
-2 Log Likelihood	1830.077		896.216		926.481	
Model χ^2	606.812***		261.780***		346.812***	

* $p < .05$, ** $p < .01$, *** $p < .001$

독립변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낙관주의 변인은 초기 청소년 전체, 남자와 여자 초기 청소년 모두에 대해 자살생각에 대하여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초등학생은 우울, 불안, 생활만족도, 주관적 정신건강 지각 요인이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자 초등학생은 우울,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변인이 자살생각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남자 초등학생은 우울과 불안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하지 않을 확률에 대해 각각 1.105배, 1.05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만족도와 주관적 정신건강의 지각이 높을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이 각각 0.942배, 0.730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초등학생의 자살생각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가장 강

력한 영향 요인은 우울로 나타나($\text{Exp}(\beta) = 1.105$, $p < .001$) 초등학생 전체의 자살생각을 가장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자기효능감($\text{Exp}(\beta) = 1.175$, $p < .001$)과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여자 초등학생의 경우 우울과 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 속성이 높을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이 각각 1.142배, 1.071배, 1.26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만족도와 정서조절 속성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은 각각 0.943배, 0.863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 초등학생의 자살생각 가능성에 대하여 가장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독립변인은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나($\text{Exp}(\beta) = 1.265$, $p < .01$), 전체 청소년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스스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자살생각의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반면 남자초등학생은 자기효능감이 자살생각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우울이 자살생각에 대한 가장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초기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심리적 관련 변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3) 중기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심리적 변인의 효과 검증

중학교 1~3학년의 중기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심리적 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 적합성을 확인하는 $-2LL$ 과 χ^2 값이 중기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모형(회귀 1)에서는 2510.347, 716.401($p < .001$), 남자 중기 청소년 대상의 모형(회귀 2)에서는 1097.232, 298.444($p < .001$), 여자 중기 청소년 대상의 모형(회귀 3)에서는 1362.720, 355.124($p < .001$)로 각각 나타나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이 포함되었을 때 모형의 예측 성공률은 중기 청소년 전체, 남자 중기 청소년, 여자 중기 청소년에 대해 각각 78.0%, 83.3%, 73.6%로 나타났다.

중기 청소년 전체의 분석 결과(회귀 1), 포함된 독립변인 중 불안과 낙관주의 변인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인들이 자살생각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속성이 증가할수록 중기 청소년의 자살생각 가능성은 각각 1.094배, 1.034배, 1.068배, 1.09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만족도, 정

서조절, 주관적 정신건강 지각 속성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은 각각 0.945배, 0.868배, 0.776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생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심리적 변인은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나($\text{Exp}(\beta) = 1.099, p < .05$), 초기 청소년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표 5

중기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통합 및 성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자살생각					
	회귀 1(통합)		회귀 2(남자)		회귀 3(여자)	
	β	$\text{Exp}(\beta)$	β	$\text{Exp}(\beta)$	β	$\text{Exp}(\beta)$
우울	.090***	1.094	.099***	1.104	.085***	1.089
불안	.016	1.016	.017	1.017	.021	1.022
스트레스	.033***	1.034	.003	1.003	.030*	1.031
생활만족도	-.056***	.945	-.073***	.929	-.041*	.960
자아존중감	.066**	1.068	.065	1.068	.049	1.050
자기효능감	.094*	1.099	.096	1.101	.102	1.107
정서조절	-.141***	.868	-.219***	.803	-.036	.965
낙관주의	-.049	.952	.034	1.035	-.159**	.853
주관적 정신건강	-.253**	.776	-.291*	.748	-.250*	.779
예측성공율	78.0%		83.3%		73.6%	
-2 Log Likelihood	2510.347		1097.232		1362.720	
Model χ^2	716.401***		298.444***		355.124***	

* $p < .05$, ** $p < .01$, *** $p < .001$

중기 남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심리적 변인의 효과를 분리하여 검증한 결과, 남자 중학생은 우울, 생활만족도, 정서조절, 주관적 정신건강 지각 요인이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심리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우울 수준이 높아질수록 남자 중학생의 자살생각 가능성은 하지 않을 가능성에 비해 1.104배 증가하고, 생활만족도, 정서조절, 주관적 정신건강 지각 속성이 증가할수록 자살가능성은 각각 0.929배,

0.803배, 0.748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중학생의 자살생각 가능성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변인은 우울로서($\text{Exp}(\beta) = 1.104, p < .001$), 중기 청소년 전체의 자살생각 예측 변인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우울은 남자 초등학생과 남자 중학생 모두에 대해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변인으로 나타나 청소년기 발달 시기에 따른 자살생각 관련 요인의 성별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알 수 있었다.

한편 여자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해서는 우울,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낙관주의, 주관적 정신건강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자 중학생의 우울과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의 가능성이 하지 않을 확률에 비해 각각 1.089배, 1.031배 증가하고, 생활만족도와 낙관주의, 주관적 정신건강 지각 속성이 증가할수록 자살가능성은 각각 0.960배, 0.853배, 0.779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중학생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변인은 우울로 나타나($\text{Exp}(\beta) = 1.089, p < .001$), 남자 중학생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를 표 4의 여자 초등학생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초등학교 여학생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던 것에 비해 여자 중학생은 우울이 자살생각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서 자살생각의 심리적 관련 요인 상에 변화를 나타냈다.

중기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과 생활만족도, 주관적 정신건강 지각 요인은 남녀 중학생 모두에 대해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남녀의 성별 효과를 배제한 중기 청소년 전체의 분석 결과에서도 이들 요인은 자살생각에 대해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독립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기의 남녀 청소년들 모두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효과보다는 우울 요인이 자살생각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자살생각과 관련한 심리적 요인의 발달적 변화를 보였다.

4) 후기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심리적 변인의 효과 검증

후기 청소년(고등학교 재학생)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심리적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 적합성을 확인하는 -2LL과 χ^2 값이 후기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모형(회귀 1)에서는 2127.460, 518.229($p < .001$), 남자 후기 청소년 대상의 모형(회귀 2)에서는 925.727, 154.968($p < .001$), 여자 후기 청소년 대상의 모형(회귀 3)에서는 1159.139, 324.502($p < .001$)로 각각 나타나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이 포함되었을 때 모델의 예측 성공률은 후기 청소년 전체, 남자 후기 청소년, 여자 후기 청소년에 대해 각각 79.8%, 83.7%, 76.5%로 나타났다.

표 6

후기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통합 및 성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자살생각					
	회귀 1(통합)		회귀 2(남자)		회귀 3(여자)	
	β	Exp(β)	β	Exp(β)	β	Exp(β)
우울	.069***	1.072	.057***	1.059	.089***	1.093
불안	.031***	1.031	.018	1.018	.044***	1.045
스트레스	.033**	1.034	.039*	1.040	-.004	.996
생활만족도	-.019	.982	-.009	.991	-.038	.963
자이존중감	-.019	.981	-.007	.993	-.024	.976
자기효능감	.073	1.075	.076	1.079	.049	1.050
정서조절	-.126***	.882	-.157**	.855	-.046	.955
낙관주의	-.010	.990	-.025	.975	-.013	.987
주관적 정신건강	-.205*	.814	-.120	.887	-.287*	.751
예측성공률	79.8%		83.7%		76.5%	
-2 Log Likelihood	2127.460		925.727		1159.139	
Model χ^2	518.229***		154.968***		324.502***	

* $p < .05$, ** $p < .01$, *** $p < .001$

후기 청소년 전체의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심리적 변인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정서조절, 주관적 정신건강 지각으로 나타났고, 후기 남자 청소년은 우울, 스트레스, 정서조절 변인이, 후기 여자 청소년은 우울과 불안 및 주관적

정신건강 지각 변인이 자살생각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심리적 변인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전체에 대해서 우울과 불안 및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이 자살생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에 비해 각각 1.072배, 1.031배, 1.034배 증가하며, 정서조절과 주관적 정신건강 지각의 속성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은 각각 0.882배, 0.814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 청소년 전체의 자살생각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심리적 변인은 우울로서($\text{Exp}(\beta) = 1.072, p < .001$)로서, 초기와 중기 청소년 전체의 결과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남자 고등학생은 우울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이 각각 1.059배, 1.040배 증가하고, 정서조절을 잘 할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은 0.855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고등학생의 자살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은 우울로 나타나($\text{Exp}(\beta) = 1.059, p < .001$) 고등학생 전체 및 남자 초, 중고생의 자살생각을 가장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요인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은 각각 1.093배, 1.04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정신건강 지각의 속성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은 0.751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 초등학생의 자살생각 가능성에 대하여 가장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독립변인은 우울로 나타나($\text{Exp}(\beta) = 1.093, p < .001$), 중기 여자 청소년의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냈으며 남자 후기 청소년의 경우와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청소년이 초기에서 중기, 후기로 발달해감에 따라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심리적 요인 중 자기효능감의 효과는 점차 약화되며 우울의 요인이 점차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 초기와 중기에 자살생각에 영향력을 갖는 심리적 변인(예: 생활만족도) 중 후기로 오면서 그 영향력의 효과가 약화되는 변화를 보이는 것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의 효과가 발달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심리적 변인들을 규명하여 청소년 문제의 한 축을 차지하며 청소년 정신건강 위험 요인인 자살행동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책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전국 규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통해 인생의 중요한 발달 시기에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처하며 보다 건강한 청소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 목표를 갖는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그 영향력을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별로 나누어 성별에 따른 효과와 함께 살펴보려고 하였다. 심리적 변인으로 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및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를 포함하여 남녀 청소년의 흡연 행동을 유의 미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에 기초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할 수 있는 심리적 변인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부적응적 심리요인과 생활만족도,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및 낙관주의와 같은 긍정적 심리요인, 그리고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지각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 요인은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의 발달시기와 청소년의 성별 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영향을 미쳤다. 성별과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 전체의 자살생각에 대한 심리적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본 연구 의 독립변인으로 사용된 모든 심리적 요인 중에서 낙관주의와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모든 심리적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자살 생각을 예언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청소년 전체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의 청소년기 발달시기 별 로 분리하여 자살생각에 대한 심리적 관련 변인을 탐색한 결과 초기 청소년기에는 남 녀 간에 자살생각의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 상에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남자 초등학생은 우울이, 그리고 여자 초등학생은 자기효능감이 자살생각을 예언하는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중기와 후기로 가면서

변화를 보였다. 즉,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은 점차 사라지고 우울이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녀 중학생과 남녀 고등학생 모두에 대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였다. 특히 우울은 청소년기 전체에 걸쳐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통해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우울이 지속적으로 지목되어 왔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김갑숙, 전영숙, 2012; 문동규, 김영희, 2012; 송인한 외, 2013; Garlow et al., 2008; Niederkrotenthaler et al., 2014; Pelkonen & Marttunen, 2003; Wong, Stequrt, Ho, Rao & Lam, 2005). 특히, 초기 남자청소년에게서는 우울이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자살생각 예측변인이 달리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김지수(2012)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성별과 자살생각 관련 요인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살생각 위험성이 더 높음을 보고하였다. 즉, 남자청소년은 후기 청소년기보다 중기 청소년기에 자살생각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본 연구 결과에 적용하였을 때, 이러한 결과에 근거한 청소년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별과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라 프로그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개인의 심리적 요인 중 적응적 속성을 가지는 생활만족도와 정서조절 및 자기효능감 요인도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일상생활에 전반에 걸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속성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과 불안 및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일상생활에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자살생각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자살행동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생활만족도 요인은 초기와 중기 청소년의 자살생각 예측에 유의미하였으나 그 영향력이 후기 청소년에게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전체 청소년기동안 어떤 특정한 심리적 요인이 일관되게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각 시기별로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이 달리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황성현, 2010). 또한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우울을 더욱 유발시켜 자살생각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은 결국은 우울 수준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 자살생각을 예방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유추할 수 있어, 청소년 자살생각의 예방에 생활만족

도가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박영숙, 권윤희, 2013).

본 연구의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자기효능감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초기 청소년 전체에 대해서 자기효능감은 자살생각에 대해 매우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의 가능성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다소 상반된 것으로, 높은 자기효능감은 삶에 대한 긍정적 의지와 연결되면서 자살생각을 낮추는 데 있어서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김효정, 정미애, 2010; 송인한 외, 2013). 비록 후기 청소년기로 가면서 자기효능감의 효과보다는 우울의 효과가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초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자살생각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나 또는 다른 변인과의 매개효과 등을 통한 보다 심도있는 고찰을 고려한 후속연구를 설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초기 청소년에게서 높은 자기효능감 수준이 자살생각의 가능성에 대한 원인으로 나타났으나 이 효과가 후기로 접어들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은 청소년 발달 과정에서 자기(self) 관련 개념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초기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도 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 전체에 대해서 남녀 간 성별을 막론하고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검사 등을 적용하여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는 것보다 자신이 스스로 지각하는 주관적인 정신건강의 평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서 개인의 인지적 평가요인이 심리적 적응의 지표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김향수, 채규만, 2014).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결과가 시사하는 중요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걸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표본을 사용한 방대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전체를 종단적으로 관통하는 패널자료가 아니라는 방법론적인 한계점이 있다. 청소년 자살생각의 원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청소년기의 각 시기별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할 수 있는 원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 시작 시점에 추출된 표본을 기초로 하여 몇 년에 걸쳐 꾸준히 추적 조사한 패널자료가 필요하지만 그런

자료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단자료가 아닌 횡단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원인규명을 위한 부분적 검증에 불과하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규모의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활용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 포함된 자살생각 경험 유무 외에도 자살생각의 이유와 자살시도 경험 유무도 함께 조사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 자살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도모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설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접근했던 개인의 심리적 요인 외에도 청소년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는 부모 및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적 요인에 대한 정보도 함께 조사하고 있어서 청소년 자살행동에 대해 심리적, 사회·환경적 영향력 및 상대적 설명력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사 내용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가정형태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정보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심리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을 보다 면밀히 세분하여 다각적으로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탐색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한익과 차주연(2013)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 자살생각을 살펴본 연구를 통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조절효과를 가지며 사회적지지 기능을 통한 자살생각 조절효과를 보고하고 있어서,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사회·환경적 영향 요인으로서 부모 양육행동 외에도 가족 및 가정 변인을 포함하는 후속연구의 모색은 청소년 자살행동을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행동을 예언하는데 의미 있는 효과를 가지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이와 같은 요인을 추후 연구를 통해 재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다른 통계기법이나 방법론을 사용하여 이 원인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떤 특정한 청소년기 시점에서 청소년 자살생각의 원인과 예측변인을 파악한 이전 선행연구들과 달리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 등으로 나누어 청소년 자살생각의 원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심리적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자 초기 청소년부터 후기 청소년에 이르는 대규모의 자료를 통해 보다 총체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청소년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에 대한 기초 지식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행동

구축 프로그램을 개발 및 임상적 현장에서의 실천적 적용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자살생각 예측 요인이 청소년의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을 어떻게 설명, 예측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데 일조하였으며, 더욱이 청소년의 발달 시기별, 남녀 청소년 별로 자살생각의 설명 요인을 세분하여 서로 다른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임상적 적용에 있어 청소년의 발달 시기 별로, 그리고 성별에 따른 보다 세분화된 실천적 적용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실천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른 효율적 적용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희양, 양경화 (2013).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분석: 우울과 자기개념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1), 539-554.
- 김갑숙, 전영숙 (2012). 청소년의 우울, 불안과 충동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1(5), 903-910.
- 김미예, 김정미 (2013).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건강요인. **청소년학연구**, 20(2), 267-293.
- 김보영, 이정숙 (2009). 청소년 자살생각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9(5), 651-661.
- 김인규, 조남정 (2006).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7(4), 1189-1202.
- 김정진 (2009).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관련 요인 연구: 자살시도 경험, 정신건강, 심리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2, 413-437.
- 김지수 (2012).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2), 261-268.
- 김향수, 채규만 (2014).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2), 1-26.
- 김현주, 노자은 (2011). 부모·친구·교사·지역사회 지지와 청소년의 자살충동 간 인과관계 분석: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2), 135-162.
- 김혜성, 김혜련, 박수경 (2007).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약물 문제를 가진 남자 청소년과 약물 문제를 가지지 않은 남자 청소년 집단 비교를 통하여. **사회복지연구**, 34, 273-306.
- 김효정, 정미애 (2010).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43-50.
- 남석인, 최권호, 민지아 (2011).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자살성 남녀 비교: 서대문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2), 467-491.
- 남영옥 (2013).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20(11), 283-304.
- 노혜련, 김형태, 이중익 (2005).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 사회적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6(1), 5-34.
- 문동규, 김영희 (2012). 청소년 자살생각과 관련된 억제변인의 메타회귀분석. **청소년학연구**, 19(1), 59-83.
- 박근영, 최유리, 김보라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2012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산업학회지**, 7(1), 155-165.
- 박선혜, 강주희, 전종설, 오혜정 (2010). 흡연 청소년과 비흡연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종단적 비교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2(2), 75-94.
- 박병금 (2007). 청소년의 가족환경과 자살생각: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논총**, 11(1), 1-17.
- 박영숙 (2009). 학교생활 스트레스, 부모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이 청소년의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스트레스연구**, 17(4), 389-398.
- 박영숙, 권윤희 (2013). 청소년의 자살생각 경로모형 분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3), 255-263.
- 박재연 (2010).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 차이. **한국가족복지학**, 28, 61-92.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 서울: 보건복지부자살예방 대책추진위원회.
- 서신자, 정민숙 (2013). 가족탄력성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5), 262-274.
- 송인한, 권세원, 김현진 (2013).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건강증진행동이 미치는 영향: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0(9), 97-123.
- 송인한, 권세원, 박단비 (2012). 친구의 자살시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 조절효과 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352-376.
- 오승환 (2009).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 우울, 자아존중감, 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 **학교사회복지**, 16, 53-73.
- 오승환, 이창한 (2010). 청소년의 자살충동 결정요인 분석: 개인, 가족, 학교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6(2), 147-170.
- 이선희, 전종설 (2012). 남·녀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

- 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연구논총**, 28, 173-202.
- 이지숙 (2013). 청소년의 충동성과 자살사고 관계 연구: 사회적지지 유형에 따른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0(3), 1-22.
- 이지현, 이정윤 (2009).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와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2), 1113-1126.
- 이창식, 정미나, 김윤정 (2012). 중·고등학생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자살생각의 예측 요인: 의사결정나무분석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3(1), 31-55.
- 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6). 비행청소년의 자살사고 예측변인. **청소년상담연구**, 14(1), 49-62.
- 장은진 (2011). 한국에서의 청소년 자살연구 개관과 향후방향성. **미래청소년학회지**, 8(4), 171-195.
- 전경숙, 박소연, 조선희 (2012). 한국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생각 영향요인의 남녀 차이. **보건의료산업학회지**, 6(4), 295-308.
- 정영주, 정영숙 (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왜해 및 친구지지 간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7-88.
- 정익중, 박재연, 김은영 (2010). 학교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222-251.
- 조한익, 차주연 (2013). 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11), 129-149.
- 최인재, 모상현, 이선영, 김혜인 (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2-R1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청소년의 자살: 예방과 상담**.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황성현 (2010). 청소년 흡연·음주행위의 원인에 대한 비행이론적 접근: 일반긴장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32, 19-38.
- 황성현 (2012).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대한 상호작용론적 연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청소년학연구**, 19(10), 23-43.
- Akers, R. L., & Sellers, C. S. (2011). **범죄학이론** (민수홍, 박기석, 박강우, 기강도, 진영실, 최병각 공역.). 서울: 나남. (원저 2009 출판)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National violent death reporting System*. Retrieved July 21, 2014, from <http://www.cdc.gov/injury/wisqars/index.html>.
- Deeley, S. T., & Love, A. W. (2013).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emotion self-confidence model of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Advances in Mental Health, 12*(1), 34-45.
- Garlow, S. J., Rosenberg, J., Moore, J. D., Hass, A. P., Koestner, B. K., & Hendin, H. et al. (2008). Depression, desperation, and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 Results from the American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college screening project at Emory University. *Depression and Anxiety, 25*, 482-488.
- Harwood, D., & Jacoby, R. (2000). Suicide behavior among the elderly. In K. Hawton (Ed.),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John Wiley & Sons. Ltd.
- Niederkröthaler, T., Logan, J. E., Karch, D. L., & Crosby, A. (2014). Characteristics of U.S. suicide decedents in 2005-2010 who had received mental health treatment. *Psychiatric Services, 65*(3), 387-390.
- Nolen-Hoeksema, S., & Hilt, L. M. (2009). Suicidality among Norwegian youth: Review of research on risk factors and interventions. *Nordic Journal of Psychiatry, 64*(5), 317-326.
- Pelkonen, M., & Marttunen, M. (2003). Child and adolescent suicide. *Pediatric Drugs, 5*(4), 243-265.
- Peterson, A. C., Kennedy, R. E., & Sullivan, P. (1991). Coping with with adolescence. In M. E. Colten, & S. Core (Eds.), *Adolescence stress: Causes and consequences* (pp. 93-110). New York: Aldine de Gruyter.
- Reinherz, H. Z., Tanner, J. S., Berger, S. R., Beardslee, W. R., & Fitzmaurice, G, M. (2006).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s predictive of psychopathology, suicidal behavior, and compromised functioning at age 30.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63*(7), 1226-1232.
- Stephenson, H., Pena-Shaff, J., & Quirk, P. (2006).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

- suicidal ideation: Gender difference. *College Student Journal*, 40, 109-117.
- Thornberry, T. P., Lizotte, A. J., Farnworth, M., & Jang, S. J. (1994). Delinquent peers, beliefs, and delinquent behavior: A longitudinal test of interactional theory. *Criminology*, 32, 47-83.
- Wang, S. J., Fuh, J. L., Juang, K. D., & Lu, S. R. (2009). Migraine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aged 13 to 15 years. *Neurology*, 72(13), 1146-1152.
- Wong, J. P. S., Stequrt, S. M., Ho, S. Y., Rao, U., & Lam, T. H. (2005). Exposure to suicidal behaviors among Hong Kong adolescent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1(3), 591-599.

ABSTRACT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ctors in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youth

Kim, Wonkyung*

The present study examined how a number of common psychological factors (namely; depression, anxiety, stress,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self-efficacy, affect regulation, optimism, and subjective evaluation of mental health) affect suicidal ideation in early-, mid-, and late-adolescence, according to gender. The data used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came from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survey administered to a sample of 8,745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depression was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suicidal ideation across the gender and the developmental stages of Korean youth. Self-efficacy was the most crucial predictor of suicidal ideation in early- and mid-adolescence, while depression was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in late-adolescence. Subjective evaluation of mental health was also significant in suicidal ideation across all stages of adolescence. Depress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edicting suicidal ideation in male youth, which implied the exist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ors of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Future directions for further studies into this area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of youth suicide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suicidal ideation, psychological factors, adolescence, gender

투고일 : 2014. 6. 9, 심사일 : 2014. 8. 1, 심사완료일 : 2014. 8. 11

*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